

7장. 성전 강설과 거짓 종교

7장의 성전 설교는 26장의 성전 설교와 내용이 비슷하다. 26장은 성전 설교가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라고 밝힌다(609년). 이사야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무렵에 사람들이 성전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였다.

두 편의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7-25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 기록되어 있다.

1. 성전 강설 (7:1-15)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성전에 올라오는 행위로 참예배를 대신할 수 없고 성전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게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와의 전이라” 하는 말이 세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그 말을 일종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문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십계명의 몇 가지 계명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일을 성전에서 자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참조 막 11:17).

여호와께서는 옛적에 실로를 파괴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겠다고 하셨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러한 죄는 지도자들만의 죄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 (7:12)이다. 따라서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 전체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신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하실 것이다(7:15).

2. 중보 기도가 금지되다 (7:16-20)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간구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알'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금지의 뜻을 지닌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참조. 11:14; 14:11; 15:1)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하늘 황후에게 바칠 떡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셨다. 이것은 성전의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까지 모두 타락하였음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 그들의 죄가 중보 기도를 효력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참조. 약 7:1-9).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큰 슬픔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된다는 점이다(7:19). 우상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그 결과 실망 속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는데 그 분노는 성전과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곡식에도 임할 것이다(참조. 4:23-28; 9:10; 12:4). 이것이 그들이 당할 수치이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3.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7:21-29)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번제물도 다른 희생 제물과 함께 그 백성이 먹으라고 하셨다. 그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때에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 제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다.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하여 예언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목이 곧고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은 이방(異邦, 개역한글 성경은 ‘국민’ 7:28)이 되었다. 이러한 나라에게는 하나

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산에서 통곡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끊어내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다.

4. 살육의 골짜기 (7:30-34)

성전 문에서 외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언약의 참된 뜻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요시아 시대에 성전을 정결케 하였지만, 백성 속에는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다. 특히 성전 안에서 행한 우상 숭배와 언약의 자녀를 도벳 산당에서 인신 제사를 한 것을 그들의 죄로 지목하셨다(7:30-31).

하나님께서서는 도벳에서 행한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도벳에 장사할 자리가 없도록 하여서 그곳을 이제는 ‘도벳의 골짜기’ 라고 부르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 라고 불리게 하리라고 하셨다. 시신들이 공중의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만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합당한 장례가 행하여지지 않는 그 일은 큰 수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다(참조 8:1-3; 9:22; 14:16; 16:4, 6; 왕상 21:23-24). 그날에는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고,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참조 레 26:33; 사 5:17).

묵상과 실천:

실로의 성전 파괴에서 배우는 것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 실로의 성전 파괴에서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서는 실로의 성전을 훼파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 을 드신다. 엘리외의 죄만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를 함께 지적하신다. 시편 78:55-60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되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숭배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들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함성을 질렀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현세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언약궤를 믿은 것도 그들의 죄가 된다.

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다른 제사물을 더하여서 그 제사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다(7:21).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돌이키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3. 강도의 굴혈이 된 성전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성전을 ‘강도의 굴혈’ 이라고 말한 또 다른 구절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는다(마 21:13; 막 11:17; 눅 19:46).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제사장들이 판매 카르텔을 조직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입성하시고서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이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사실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행하신 처음 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기록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19)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이것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요 2:21)이라고 설명한다. 강도의 굴혈이 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써 성신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셨다. 강도의 굴혈처럼 된 성전을 주님께서 십자가로써 정결케 하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로 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어 가신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고, 죄와 부족과 연약함이 있는 교회를 말씀과 성신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7장 익힘 문제

1. 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디에서 여호와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2절)
 - 2)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 5절)
 - 3) 성전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8절)
 - 4) 여호와와 집이 무엇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11절)
2.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처소처럼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2, 14절)
3. 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18절)
 - 2) 그들은 그 행위를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17절)
 - 3) 그 행위에 참여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일을 찾아서 써 보십시오. (18절)
 - 자식들 -
 - 아비들 -
 - 부녀들 -
 - 4)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은 어디에 불같이 임할 것입니까? (20절)
4.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3절)
5. 1) 유다 자손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무엇을 건축하였습니까? (31절)
 - 2) 거기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 3) 여호와께서는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리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32절)
6. 여호와와 심판이 임할 때의 유다의 황폐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엇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는지 찾아서 써 보십시오. (34절)